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2.(목) 배포즉시 배포 2026.11.12.(목)

생산적 금융 시대, 지식재산(IP) 금융으로 실현한다

- 지식재산처·금융위원회, 「제8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 공동 개최 -
- 국내외 전문가와 IP금융 정책방향 및 글로벌 동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와 11. 12.(목) 14시 30분 더 그랜드 롯데 서울(서울 중구) 사파이어 볼룸에서 「제8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The 8th IP Finance Forum: IPFF)」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의 시대, 지식재산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진행되는 포럼에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지식재산 금융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다.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정부와 금융권 전문가가 함께 지식재산 금융의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9년 제1회 포럼 이후 매년 개최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 속에서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해외 지식재산 금융 동향과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식재산처에서 기조연설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지식재산 금융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전문가 주제 발표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이후 은행의 기술분석·기술영업 고도화 전략',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과 가치평가 활용' 등이 이어진다. 해외 전문가들도 '세계 지식재산 금융 현안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의 IP금융 활성화 정책', '미국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NPE)의 지식재산 수익화 동향과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에의 시사점', '손해배상 목적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과 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자금이 혁신기업과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축적한 기술과 지식재산이 금융을 만나 기업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 금융은 초기기업 육성부터 스케일업을 거쳐 상장 전 투자까지 기업의 성장단계 전 주기에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라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아 자금 공급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권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책임자	과 장	강윤석 (042-481-3542)
		담당자	사무관	서정석 (042-481-506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남지윤 (02-2100-28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제8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포스터**

